제4장 당면과제를 파악하라

도 입

과거 역사에서 정치가나 임금이 시무(時務) 곧 당면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한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국가나 기업을 운영할 때도 당면과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율곡 선생은 이 장에서 시무를 당연히 알아야 할 것과 창업(創業)의 도리, 그리고 그 창업한 것을 지키는 것과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창업과 그 창업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오늘날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참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는 글이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지혜로운 이는 모르는 것이 없지마는,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하니, 여러 계책이 모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시무(時務)에 절실한 것을 취해야 한다.

[서경]

생각이 선하거든 그것에 따라 움직이되, 움직이는 것은 그 때[時]에 마땅하게 한다.

〈주석〉 채씨가 말하였다. “선은 이치에 합당하다는 뜻이요, 시(時)는 때에 마땅하다는 뜻이다. 생각이 진실로 이치에 합당하고자 하지마는, 움직이는 것이 그때가 아니면 오히려 유익함이 없다. 성인이 이 세상과 대응하는 것 또한 때에 맞게 할 뿐이다.”

[주역]

천지는 순조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와 달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사시(四時)는 그 절기가 어긋나지 않는다. 성인도 순조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형벌이 공정하여 백성들이 복종한다.

[주역]

공자가 말하였다. "황제(黃帝)와 요순(堯舜)이 나와서 그 변화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싫증나지 않게 하고, 신묘하게 교화하여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하였다. 역(易)은 궁(窮)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이 때문에 하늘이 도와주므로 길하여 이롭지 않는 것이 없다."

〈주석〉 정자가 말하였다. "변(變)을 알고 화(化)를 알기는 어려운 일이다. 고금의 풍기(風氣)가 같지 않으므로 그 기용(器用)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성인은 변화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싫증나지 않도록 각각 그 시대를 따라서 알맞게 할 뿐이다."

[맹자]

맹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나라를 세우고 왕통을 전하는 것은 계승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앞에서 왕업의 터전을 세우고 뒤에서는 후세에 왕통을 전하여, 그 바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후세에 이어서 행하게 할 뿐이다."

[서경]

부열(傅說)이 아뢰기를, "선왕의 이룬 법을 모아서 길이 허물이 없게 하옵소서."

〈주석〉 채씨가 말하였다. "반드시 선왕의 법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선왕이 이룬 법을 자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함을 말한 것이다."

[시경]

허물을 짓지도 않고 잊지도 않으며, 전장(典章)을 따르노라.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행하는 것이 허물을 짓는 일도 없고 잊지도 않는 것은 선왕의 옛 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주역]

항(恒)은 형통(亨通)하여 가는 바가 있음이 이롭다.

〈주석〉 정자(程子)가 말하였다. "항(恒)은 변치 않고 오래간다는 것이다. 항도(恒道)는 형통할 수 있어서 어느 한 모퉁이만을 지키고 변(變)을 알지 못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는 것이 있음이 이롭다. 오직 그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고 오래갈 수 있다. 만약 일정하다면 변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때에 맞게 변역(變易)하는 것이 곧 상도(常道)이니, 천지가 오래가는 도와 천하가 오래가는 이치는, 도를 아는 이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는가?"

[주역]

개혁하자는 말이 세 번 이루어지면 믿음이 있을 것이다.

〈주석〉 정자가 말하였다. "마땅히 개혁하여야 한다는 말을 살펴보아 이 말이 세 차례나 이르러 다 합하면 믿을 만하다. 마땅히 개혁하여야 할 일을 두려워하여 개혁하지 않는다면 때를 잃어서 해가 된다. 오직 마땅히 지극히 신중하게 하되 스스로 강하다고 자임하지 않고, 공론을 살피고 상고하여 개혁하자는 의논이 세 차례 합치된 이후에 이것을 개혁하면 과실이 없다."

[주역]

거친 것을 포용하며, 큰 강물을 걸어서 건너며, 먼 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며, 붕당(朋黨)을 없애면 중도(中道)에 합당할 것이다.

〈주석〉 정자(程子)가 말하였다. "거친 것을 포용하고, 큰 강물을 걸어서 건너며, 먼 데 것을 버리지 않으며, 붕당을 없애는 이 네 가지는 태평 시대에 처하는 도이다. 사람의 마음이 안일하고 방자하면 정치가 느슨해지고 법도가 해이(解弛)해져서 모든 일이 절도가 없게 된다."

[율곡의 풀이]

시무(時務)는 어느 때나 한결같지 않고 각각 마땅한 것이 있다. 큰 요체를 추려 보면 창업(創業)과 수성(守成 :조상이 이룬 일을 지침)과 경장(更張 : 개혁)하는 것 세 가지뿐이다.

창업의 도는 요(堯)·순(舜)·탕(湯)·무(武)의 덕으로 개혁할 시기를 만나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에 순응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되니, 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것도 없다. 이른바 수성(守成)은 성스러운 임금과 어진 재상이 법을 창제해서, 정치 기구를 다 갖추고 예악을 융성하게 하면, 후세의 임금과 후세의 어진 이는 다만 그 이루어진 법규에 따라 가만히 팔짱을 끼고 이것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른바 경장(更張)은 나라의 흥성함이 극에 달해 중간에 미약해지고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겨, 마음이 안일에 젖어 고루한 것을 하던 대로 따르고, 백 가지 제도가 해이해져 날로달로 어긋나 나라를 다스

릴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현명한 임금과 현철한 신하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떨쳐 일어나 법도와 기강을 붙들어 세우고, 어리석고 게으른 의식을 일깨우고 구습(舊習)을 깨끗이 씻어서 숙폐(宿弊)를 개혁하여, 선왕의 뜻을 잘 이어서 일대의 규모를 새롭게 한 뒤에, 그 공업(功業)이 선열을 빛내고 후손에게 끼쳐지게 되는 것이다. 수성(守成)은 비록 평범한 임금과 머릿수나 채우는 신하라 하더라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으므로 쉽다. 그러나 경장(更張)은 높은 식견과 뛰어난 재주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으므로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수성해야 할 때 경장에 힘을 쓴다면, 이것은 병도 없는데 약을 먹는 것과 같아서 도리어 병을 얻게 되는 것이요, 마땅히 경장해야 할 때인데 수성하는 데에 힘을 쓴다면, 이것은 병에 걸렸는데 약을 물리치는 것과 같아서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격이다. 어떤 사람이 개혁하는 것은 반드시 적임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임금이 이 세상에 뜻이 없다면 어쩔 수 없으나, 만일 성심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원한다면, 누추한 곳에 있는 사람들도 밝게 드러낼 것이니, 어찌 알맞은 사람이 없겠는가? 비유하자면 자손이 조상의 옛집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으니, 해가 묵어서 재목이 썩어 무너지려 하는데, 목수를 찾지 못하면 개수(改修)할 수 없다고 할 때, 집주인은 천 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가서 급히 목수를 구하겠는가? 아니면 목수를 찾지 못했다고 핑계 대면서 앉아서 그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가? 폐정(弊政)을 개혁하는 것도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아, 인정(人情)은 옛 습속에 안일하고, 세상의 풍습은 이전의 법규에 젖은 것이 마치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여 놓고 거문고를 타려 하고,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서 토끼가 와서 마리를 부딪쳐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눈앞에 아무 일이 없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다 뜻밖에 기이한 재난을 빚어내는 일이 많다.

해 설

시무(時務)란 당면과제이다. 어떤 제도나 법이든 현실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치가나 지도자는 그 국가나 조직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결국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기업이나 조직을 망하게 할 것이다.

율곡선생은 이 당면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다. 곧 창업(創業)과 수성(守成)과 경장(更張)이 그것이다. 창업이란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왕업이나 국가의 건국 또는 기업의 창업이 그것이다. 수성이란 이전의 법과 제도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이요, 경장이란 폐습과 부조리가 생겨 개혁하는 일이다.

선생은 경장의 문제를 가장 심도 있게 거론하였는데, 바로 선조 당시의 조선 중기가 국가 개혁의 시

점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혁이란 참으로 힘든 일이다. 흔히 개혁이 창업보다 어렵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못하고 있다. 그것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나마 개혁을 하려던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를 제외하면, 조선후기 역사 자체가 지지부진하여 쇠락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단지 역사적 사실로서만 인식하면 위험하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민족이나 국가의 말로는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율곡 선생은 학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뜻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뜻을 세우면 그 즉시 공부에 착수할 수 있고, 부지런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선생은 공부하는 사람이 성인(聖人)이 되기를 기약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성인이란 현실의 당면과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일까? 현실을 버려두고 홀로 고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이 시무(時務)를 말하는 내용과 관련지어 오늘날 성인이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나라와 사회를 창업(創業), 수성(守成), 경장(更張) 가운데 어느 것이 필요한 단계에 해당한다고 파악할까?

2. 역사는 발전하는 것일까? 아니면 퇴보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발전과 퇴보를 반복하며 순환하는 것일까? 율곡 선생은 왕조의 변화과정을 창업-수성-경장의 과정으로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볼 때 국가나 기업의 변화가 어떤 단계나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3. 맹자는 "한 가지의 불의(不義)를 행하고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업이란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에는 한 가지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고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나라는 분명 훌륭한 나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34개 중 27위를 기록해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가청렴도를 높이려면 지도자에게 어떤 일이 필요할까? 옛 경전에서 한 말 가운데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4. 개혁이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새로운 것도 오래되면 낡은 것이 되고 새롭게 고쳐야 할 때가 온다. 여러분 개인의 일에서 고쳐야할 가장 급선무는 무엇일까?

5. OECD 회원국 34개 부패인식지수(CPI) 27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6. 옛것을 지키기만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규정대로만 하면 오히려 일을 못하게 방해되는 점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이라 하여 이런 규정을 폐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편 규정이란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 사안에 따라 일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때가 있다. 가령 환경보전과 오염방지 그리고 안전을 위한 규정이 그런 것이다. 단지 경제 활성화나 경제성장을 위해 이런 규정조차도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 각자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한문 익히기

촬 기 대 요 즉 창 업 수 성 여 부 경 장 삼 자 이 이
撮其大要하면 則創業守成與夫更張三者而已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撮 : 취하다, 모으다/其 : 그/大 : 크다/要 : 요긴하다/則 : 곧/創 : 비롯하다, 만들다/業 : 업, 일/守 : 지키다/成 : 이루다/與 : ~와(과)/夫 : 저/更 : 고치다/張 : 베풀다, 매다/三 : 석, 셋/者 : ~것/而 : 접속사/已 : 어조사

*~則~ : ~하면 ~하다(이다)의 조건을 만드는 어조사로 쓰임

*~與~ : ~와(과)~

*而已 : ~뿐이다의 뜻으로 문장 뒤에서 강한 단정을 나타내는 어조사

*其 : 생략된 앞 문장의 視務를 받는 대명사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창업(創業) : 나라나 기업 등을 처음 세움

*수성(守成) : 조상이 세우거나 이루어 놓은 일을 이어나감

*경장(更張) : 거문고의 줄을 다시 고쳐 맨다는 뜻으로 해이해진 제도를 개혁한다는 뜻

해석

큰 요체를 추려 보면, 창업(創業과 수성(守成)과 경장(更張)의 세 가지뿐이다.

인 정 안 어 고 속　　세 습 익 어 전 규　　교 주 고 슬　　수 주 대 토
人情安於故俗하고 世習溺於前規가 膠柱鼓瑟과 守株待兎라(『성학집요』).

한자 풀이와 해설

情 : 정/安 : 즐거움에 빠지다/於 : ~에/故 : 옛/俗 : 풍속/世 : 세상/習 : 습속/溺 : 빠지다/前 : 앞/規 : 법, 규정/膠 : 아교/柱 : 기러기발/鼓 : 치다, 북/瑟 : 큰 거문고/守 : 지키다/株 : 그루터기/待 : 기다리다/兎 : 토끼

*人情~前規까지가 주부(主部)이고 교(膠) 이하가 술부(述部)로서 어조사가 없는 문장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교주고슬(膠柱鼓瑟) : 비파나 거문고의 발은 곡에 따라 옮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교로 붙여 놓으면 곡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것을 비유한 말

*수주대토(守株待兎) :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실효성 없는 기대는 공연히 시간만 허비한다는 뜻

해석

인정이 옛 습속에 안일하고, 세상의 풍습이 이전의 법규에 젖은 것이 교주고슬(膠柱鼓瑟)과 수주대토(守株待兎)의 모습이다.